

## 21세기 사회와 한국 가족

서 선 회 (광주대학교 교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가족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가족의 구조, 가족 관계, 가족 기능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미, 개념에도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 아동, 이혼, 별거, 혼전 성관계 등의 여러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한국 가족의 변화는 변화하는 사회에 가족이 재조직화되는 과정이며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한국가족학회, 1994 : iii) 이러한 변화를 가족해체와 위기의 징후로 보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신용하·장경섭, 1998).

한 사회의 가족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가치의 문제와 닿아 있다. 그것은 어떤 가족을 가족으로 볼 것인가, 혼외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독신·동성애·미혼모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가족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곧 개인의 생활방식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치의 문제인 것은 가족정책의 방향 수립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 제도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가족에 대한 보장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가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이는 20세기 서구 사회에서 복지 형태가 현대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가족의 변화를 역기능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가족만을 원조하는데 주력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이혜경, 1996 : 103-105)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 전통적 "가족가치"를 옹호하는가 아니면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Ross, 1994 : 1-2), 이같은 사실은 가족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문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현대 가족의 변화를 보는 관점은 대체로 수용적,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98년 현재처럼 가족이 IMF 체제로 인한 경제위기를 견디어내는 안전망 구실을 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의 가족변화를 큰 우려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의 생활에 가족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봉건적 잔재로 여기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가족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한국 가족에는 봉건적 속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이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조혜정, 1986; 장경섭, 1994; 이재경, 1994)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가족의 변화는 한국 가족의 봉건성 극복 차원을 넘어 대단히 광범위하고 깊게 진행되고 있어서<sup>1)</sup> 과거처럼 한국 가족의 변화를 수용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단순히 빈곤가족과 같은 요보호 가족만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가족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의 가족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의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복지와 관련하여 가족의 위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검토하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변화의 기본 방향과 이에 따른 가족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90년대 한국 가족의 변화

'98년 현재 한국 사회는 IMF라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있고 이러한 경제위기는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는 한편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기제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그로 인하여 가족의 응집성을 강화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나,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IMF 이전과 비교해볼 때 소수이기는 하지만 늘어(각각 1%, 4%; 중앙일보, 1998년 9월 16일), 경제

1) 자세한 것은 서선희, 1998을 참조할 것.

위기로 인해 가족관계가 돈독해지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는 가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숙자 10명중 7명이 IMF 이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대상자의 71%가 IMF 사태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해 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김경신, 1998 : 11). 노숙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98년 말에는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MF 체제이후,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 들어 8월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의 증가율(30%)은 '97년의 3배에 이른다(조선일보, 1998년 9월 26일 4쪽). 이혼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따른 일반 가정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친부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나 보험금을 노린 배우자 청부살해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존속상해가 늘어 가족이 윤리 면에서도 붕괴하고 있다.

현금 진행되고 있는 가족약화에 대해서는 경악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IMF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의 약화는 IMF로 인한 경제적 원인의 영향을 받은 약화와 IMF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포스트모던적” 약화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70년대 이래 한국 가족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90년대를 전후하여 변화 양상이 질적으로 특성을 보이고 있다(서선희, 1998 : 54-56). 대략 '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가족변화가 고전적 가족의 의미를 혼드는 것이 아닌, 전통 가족의 봉건성으로부터의 해방의 성격을 띤 ‘근대적’ 성향의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변화는 ‘탈근대적’ 성향을 띤 것으로 기존의 가족 개념에 도전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족해체의 조짐도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IMF 체제로 진입하기 이전 한국 가족에는 “포스트모던적”<sup>2)</sup> 가족개념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가족변화로 인해 IMF 이전에 이미 가족해체 현상은 진전되고 있었고 그같은 현상이 IMF라는 경제난 속에서 조금 더 빨리 진전되고 있다. 이 점은 이혼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방 증명된다. IMF 이전부터 이혼율은 이미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의 이혼율은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구보다 낮은 수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 낮았고 기껏해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혼율은 2.00%를 넘어서는데 이는 미국의 4.7%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는 일본의 이혼수준을 앞질러 버렸고 유럽의 일반적 수준에 거의 가까워가고 있다

2) “포스트모던적” 가족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은(1995), 서선희(1998) 등을 참조할 것.

(한국가족학회편, 1995 : 44). 물론 국가간의 이혼 통계는 국가에 따라 통계 기준과 척도가 다르고 이혼제도도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같은 통계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이혼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음은 분명하다.

가족약화의 현상은 이혼율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性)에 대한 태도도 변하고 있었다.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 조사(중앙일보, 1998년 9월 16일)에 의하면, 결혼전 성관계에 대해 '안된다'는 37.1%, '결혼할 사이면 괜찮다'가 37.3%, '결혼과 관계없이 사랑한다면 괜찮다'가 22.8%로, 가족이 성을 통제하던 과거와 비교할 때 성이 가족으로부터 유리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더 급격한 변화는 혼외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조사 대상자의 26.8%가 혼외관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혼외관계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엄격하던 종래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90년대 중반부터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아직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에 관한 이같은 변화는 성에 관한 기존의 견해, 즉 성은 혼인관계에 제한한다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는 성관계를 삼가며 이성의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갖다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태도도 "결혼은 '해야한다'가 74.5%, '꼭 할 필요는 없다'는 25.5%"(중앙일보, 1998.9.24. 4쪽)로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이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가족의 약화의 배경에 IMF성 경제적 이유와 탈근대적 이유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IMF 체제가 종식된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약화되는 경향은 쉽사리 반전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목전에 다가온 21세기의 사회환경이 가족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가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상업화, 기계화는 그러한 조건의 하나이다. 20세기 말 현재 이미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가 90% 이상이 보급되고 진공식품, 패스트 푸드, 냉동식품 등의 등장으로 인해 가사노동의 수행이 용이해졌지만, 미래 사회에서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상품화는 더욱 더 진척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사노동은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의 기계화·상업화가 곧 바로 가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켜 가족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21세기의 의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은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등처럼 배우자와의 성적 교섭을 통

하지 않고도 '가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이 또한 고전적 가족개념을 위협하거나 가족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1세기에는 가정 내에 컴퓨터, 다기능을 수행하는 텔레비전, 팩시밀리, E-mail, 화상전화, 은행 업무의 전산화 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같은 가족에서의 정보화·전산화는 공간적으로 흩어져 살수밖에 없는 가족이 공간 거리와 상관없이 근접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 가족의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이소희 외, 1998 : 512). 이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어 가족과 직장이 합쳐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생활에서의 가족의 중요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내 정보화는 직장과의 가족을 한데 묶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1인 1실·1인 1대의 통신 기기·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등과 같이 가족원의 개별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가족의 회복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더구나 정보화와 기계화의 덕으로 공간 거리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일상을 같이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효과와 같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21세기의 사회 조건의 변화가 곧장 가족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21세기 사회환경의 변화는 20세기 말에서 보이고 있는 가족 약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은 해체되지는 않고 있을 지라도 약화되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 더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II. 가족의 중요성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은 붕괴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과연 미래사회에서도 가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과연 인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해결해보고자 한다.

## 1. 가족은 인간의 생명을 키우는 곳

인류학 보고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제도 중의 하나가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이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제도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인류사회가 계속 유지되려면 인간이 재생산되어야 하고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재생산의 차원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을 놓고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대 문명과 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탄생에서 보여지듯 결혼과 가족을 통하지 않고도 인간 재생산과 양육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의 자유화로 가족을 이루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도 얼마든지 가족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재생산이 가족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인간 재생산이라는 이유에서 꼭 있어야 할 제도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절히 잘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게 되어있기 때문이다(Ross, 1994 : 235). 어린이는 그들을 낳아 준 부모가 기를 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될 수 있다. 가족이 인간 재생산에 최적임은 그간의 공동체적 양육 방식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해준다.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오랫동안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자립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인간은 가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가족이 어린 생명의 성장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산업화와 임노동화로 인해 가족과 일이 분리되고 가족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성인의 삶에도 중요하다. 흔히 가족학에서 정서적 장소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가족은 쉬는 곳, 위로를 받는 곳,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시 사회에 나가 싸울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성인의 삶에서 가족의 정서적 중요성은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가족은 냉혹한 바깥 세계에서 돌아와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는 곳이다. 가족은 혈연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 혈연이라는 원초성때문에 여타의 제도에 비해 장기적이고도 확실한 헌신·보살핌·배려·희생이 가능한 곳이 가족이다. 물론 혈연으로 인한 불가분성으로 인해 가족이 개인을 구속하거나 억압하고 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기

도 하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볼 때, 가족은 용서·관용·회생이 보다 많이 보장되는 곳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포괄적인 심리적 안정·정서적 지지를 보다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가족은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만드는 장소로 집약할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이 생존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매일의 물질적·정서적 조건을 일차적으로 제공하여 인간의 생명을 키워낸다. 가족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들은 통합적으로 보면 인간 생명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기능이며, 바로 이점이 가족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족이 인간 사회에 필수적 제도였던 것은 가족이 인간의 생명을 키워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된다.

물론 가족이 인간에게 항상 기능적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불의와 부조리의 장소이기도 했고, 시민 사회 건설에 가족 중심적 사고가 제동을 걸기도 했으며<sup>3)</sup>, 사회적 연대의 장애물이기도 했다. 특히 여성에게 가족은 여성의 삶을 왜곡하는 기제로서 작용해왔다. 여성주의자들의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성에게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의 장이면서 불평등한 남녀관계의 장”이었고 “가족 내 성별분업은 하나의 억압의 장”이었다(조은, 1995 : 41). 그러나 이같은 비판적 시각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비판적 시각에서의 가족은 사회적 단위로서만 또는 지위결정의 요소로서만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가족은 정의와 개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다른 측면, 즉 가족은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 2. 한국인의 무의식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가족중심주의” 사회로 가족은 한국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 전통은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에 부정적이며 따라서 벗어나야 할 과제로 비판을 받아왔다(조혜정, 1986; 장경섭, 1994). 또 실제로 가족 중심주의는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사회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이 변화하여 그 영향력이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비판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중심적 삶은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조혜정, 1986; 장경섭, 1994를 참조할 것.

이들테면 강력범이나 탈옥수가 경찰과 대치극을 벌릴 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어머니는 설득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며 이는 여타의 사회에 비해 한국의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그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명절이 되면 장시간의 교통 체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상과 부모를 찾아가며,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산다. 가족중심주의를 한국 사회의 심리를 해석한 최봉영(1994 : 19)은 한국 사회에서의 “개인의 실현은 본가(本家)에서 태어난 ‘내’(-自家)가 업가(業家) 속에서 일가(一家)를 이루어 국가적 무대 속에서 대가(大家)로 이름을 드러내어 ‘나’(-自家)를 완성하는 가(家)의 실현으로 나타난다”고 보아 한국인의 삶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 동안 가족의 전통적 요소들을 ‘봉건적’ 잔재라고 치부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 열심히 비판해 왔지만, 그것들은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른바 세계화·정보화·탈근대를 지향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강정인, 1998 : 111). 가족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모양지워온 근본적인 힘의 하나이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의 전통과 역사로부터, 곧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강정인, 1998 : 113)되는 근대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경제와 사회, 1998). 이러한 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족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이다. 한국 가족의 전통을 수구적이고 봉건적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수용적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전통 가족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변용시키고, 무엇을 재창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함은 말할 나위 없다.

### 3. 여러 부분적 통계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열망은 여러 파편적 통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혼율이 높아가고 독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가족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부분적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의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상품화를 연구한 루쓰 코완의 연구는(1997) 가사노동의 기계화·상품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어떤 부분들은 결코 기계화·상품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자녀를 기르면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그들만의 조명으로 침실을 꾸미고, 그들의 기호에 따라 옷을 입고, 그들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면서 그들만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선호”(루쓰 코완, 1997: 168)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루쓰 코완의 발견은 사람들은 편의성을 쫓되 친밀감을 포기할 정도로 쫓지 않는다는 사실과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하여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한편으로는 가족의 중요성이 상실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혼율이 높으나 이혼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시 재혼한다는 사실에서도 암시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혼은 독신보다는 재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Elliot의 주장대로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에 대한 포기로 행복한 결혼생활에로의 대치희망이다(Lamanna & Riedmann, 1991). 이러한 사실들이 시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해체는 사람들이 가족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족의 역기능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이다. 가족약화 내지는 해체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가족은 요구되고 있다.

### Ⅲ. 가족의 강화

지금까지의 논의는 가족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인데도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은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가족연구의 과제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된다. 이는 다시 가족을 강화한다면 어떤 가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 1. 가족의 형태

가족이 필요한 것이라면 한국인의 생활이나 정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족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어야 하는가? 인간에게 미치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결혼 제도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부부와 자녀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 형태가 기본 가족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한국 사회의 3대가족의 전통이다. 3대가족이 현대 한국 사회에 적합한 형태의 가족인가에 대

해서는 3대가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개인의 사생활(privacy)의 보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게 하는 셈이 된 다든지 하여, 현대 사회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현대 핵가족은 불안정성이나 고립성이 높고 따라서 위기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 쉽게 해체될 소지를 안고 있다. 3대가족과 관련하여 그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3대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핵가족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일이 중심인 데에 비해, 3대가족은 노부모를 적극적 가족성원으로 포함하여 노부모에 대한 공경과 책임을 포함한다. 부모가 늙어 힘이 없을 때 봉양 하는 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고 동시에 가족이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생활방식이다. 따라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만을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보는 데서 벗어나 부모를 중심으로 한 3대가족도 가족생활의 한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3대가족이라 하지만 반드시 3대가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하는 형태의 가족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것도 3대가족에 포함된다. 핵가족 중심의 단 절되고 고립된 가족이 아니라 노부모를 가족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가족 개념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공간적 거주는 융통성을 떨 수 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을 핵가족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노부모 를 가족에 포함시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혼과 부부 그리고 자녀가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는 가족을 기본 가족으로 받아들인 다해도 다양한 가족형태, 예를 들면 이혼가족·재혼가족·편부모 가족 등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들은 개인의 선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의 문제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혼과 가족 중심적 가족 개념을 견지해 가되 이러한 가족에 대 한 강조가 여기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다양한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혼 및 가족의 중요성 까지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 사회에서 가족이 안정되고 그 중요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자들의 경 험과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강한 가족은 강력한 가

부장이나 위계체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에 관련없이 인간으로서의 상호존중, 민주적인 의사소통, 협력 등을 통해서 강한 가족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가족의 부계적 친족 제도의 관습,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일방성, 가족 내 역할분담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해져야 한다.

## 2. 가족의 이념

'70년대 이래로 한국 가족이 급격히 변하면서 노인 부양, 부부갈등, 부모-자녀간의 세대차 등등 여러 가족문제가 노정되어 왔다. 한국 가족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가족원들의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주 해결책으로 거론되어 왔다. 가족내 청소년의 문제나 노인의 문제 또는 고부갈등에서 부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상대방을 개인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면서 문제의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노인 문제도 “자식이 자신의 분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과 분리하여 자식에 대한 몰입을 억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방식이 해결책의 하나로 권고되었다. 부부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처방되었다. 남편에 대한 몰입에서 헤어 나와 자신의 삶을 살 것, 독립적일 것 등이 제언되어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년대 이래로 한국 가족에서의 삶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간의 한국 가족의 봉건성, 비민주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개인주의적 이념의 강조는 한국 가족의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의 일부분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개인성, 자유 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 외에 관계성, 협동, 헌신 등의 가치들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국 가족의 이념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압도되어 그 반대의 가치는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가족 생활의 원리로서 공동체성, 즉 헌신(commitment), 협동, 관계성 등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공동체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 가족의 전통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다. 전통 가족에서는 가족원이 개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간의 헌신(commitment), 배려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것은 전통 가족개념이 '전근대적' 개념의 보다는 기반하고 있는 인간관과 자아관이 현대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가족에서 사람

은 관계적 존재로 인식된다(서선희, 1995).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존립가능하며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개인주의 사고에서 인간은 개인일 때만 인간답지만 전통가족에서는 인간이 관계성 속에 놓일 때, 즉 부모, 형제, 부부, 자식으로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을 때 자아 중심적인 자기를 버리고 이타적 자기로 돌아가는 것을 체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 자아관 또한 다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외부 지향적 자아'(또는 '밖으로 뻗어 가는 자아', extensive self)로부터 '내면 지향적 자아'(또는 '안으로 파고드는 자아', intensive self)를 분리시킨다.(이홍우, 1994 : 188).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내면적 자아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며, 이러한 가치관에서는 "그 자아가 지향하는 표준으로서의 '외부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자아,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아,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자아"(이홍우, 1994 : 188)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통 가족개념에서 자아는 외부 지향적 자아로 "그 자아가 지향하는 표준으로서의 '외부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자아,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아,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자아"(이홍우, 1994 : 188)이다. 한국의 전통 가족개념에 자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격리되는 자유주의 식의 자아개념이 없는 것이다(서선희, 1995 : 29).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즐거울 수 있으며 자식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기뻐질 수 있다. 자신을 외부와 분리해 냄으로써 행복해지기보다는 외부와 일치시켜 헌신을 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충분히 행복해 질 수 있었다.

한국 가족의 이러한 전통적 측면은 가족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려내야 할 부분이다. 가족원간의 양보, 헌신, 내어줌이 개인성을 상실하게 하는 불행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을 성숙하게 하는 행위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에 가족원의 개인화라는 방법 못지 않게 공동체성의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노인의 홀로 서기도 중요하지만 연장자로서 또는 노부모로서 자식과 젊은이를 위한 내어줌과 배려도 강조되어야 하며, 자식은 결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한 헌신이나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조성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가족의 강한 가족유대감, 효, 부모-자녀의 강한 유대, 친족관계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전근대적 유물이기보다는 21세기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전통들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이를테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내 자식 먼저의 이기적 행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 — 그렇다고 하여 그것들의 전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 가족의 전통에는 공동체성, 관계성을 위한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에 살려내어야 할 것들이다.

### 3. 가족정책의 필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가족 중심의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현대 가족에는 가족 자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노부모나 자녀가 가족 중심의 부양이나 양육을 받는 생활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와 같이 가족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서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사회보장 또는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빈곤한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가구를 위한 것들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가족을 단위로 한다기보다는 아동·노인·여성 등에 대한 개별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삶에서의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한국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하는 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가족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보장은 서구사회의 개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사회보장정책들이 만들어지는 '한국형 복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국형 복지 모형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가족을 통한", 그리고 "가족에 의한" 정책의 형태를 의미한다. 가족정책이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은 가족정책의 영역은 신용하·장경섭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1996 : 186-187)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가족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행정적 기능과 고용·복지·보건·주택·문화 등 여타의 사회정책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반면 후자는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서비스로서의 가족정책이다. 가정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족정책은 지역사회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가족을 돕고 가족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설과 행정조직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그들의 자식들이 일을 나가는 낮 동안에 맡아 돌봐주는 일일 보호센터(“탁노소”)의 건립, 가족관계의 적용과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의 손쉬운 접근 등이 그러한 것이다. 지역사회 단위의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의 확대도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면서 가족원끼리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할 시설들이다. 가족원들 편에서 손쉽게 지역의 가족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과 지역사회 단위의 가족정책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정복지관”이나 “가정복지사” 제도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 4. 가정학과 가족정책

근래에 들어 가정학의 연구대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에서 떠난 가정학의 분야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생활을 일차적인 연구분야로 삼고 있는 학문이 가정학이다. 가정생활 전반, 다시 말하자면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의·식·주·가족이 연구되는 분야가 가정학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분야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정학의 주요 연구분야라고 볼 때 가정학은 당연히 가족복지와 가족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에서의 가족정책에 관한 관심은 매우 초보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복지나 정책이 본격적인 연구 영역으로 부상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일 듯 싶다. 또한 가족복지나 정책은 “문제 가족” 내지는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고 그런 만치 일반적인 가정생활에 많은 비중을 두는 가정학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금의 가족복지나 정책은 가정을 강화하고 그것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볼 때 가족복지나 정책에는 다분히 가정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가정생활이란 가족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원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물질 조건, 즉 의·식·주의 구비가 필수적이고 가정학의 연구 대상이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정학은 가족복지나 정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가정학의 여러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내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내며 가족복지의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정인(1998). 전환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37, 봄호. 98-116.
- 경제와 사회(1998). 특집, 우리시대 진보란 무엇인가. 봄, 37호.
- 루쓰 코완 지음. 김성희 외 번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1997.
- 배리 쏘은. 매릴린 알름 위음(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서선희(1995). 가족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적 해석. *가족학논집*, 7집. 21-44.
- \_\_\_\_\_(1998). '90년대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의 방향. 23차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문.
-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 지식산업사.
- 이소희·정민자·김경희·박인전·손지미·김영란·홍계옥·도미향·김민정(1998).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 양서원.
- 이재경(1994). 현대 가족의 반 사회성. *철학과 현실*, 가을. 67-75.
- 이혜경(1996). 한국의 가족정책: 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박병호 외. 서울 : 학지사.
- 이홍우(1994). 전통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인의 전통교육 사상*. 이계학 외.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소.
- 장경섭(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철학과 현실*, 가을. 51-66.
- 조은(1995). 서구 가족사회학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박숙자·손승영·조명덕·조은편역. *가족과성의 사회학*. 서울 : 사회비평사.

- 조혜정(1986).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63-182.
-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 서울 : 느티나무.
- 한국가족학회 편(1994).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 교육과학사.
- 한국가족학회 편(1995).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서울 : 하우.
- Lamanna, M. A. & Riedmann, A. (1991). Marriages and families(4th ed.). Wadsworth Publishing Co.
- Ross, J. J. (1994). The virtues of the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